



회원대학 소식

강원대

강원대(총장 최현섭)는 미국의 의학분야 특별 교육과정인 미니 의학교(Mini-Medical School)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운영키로 했다고 7월 1일(화) 밝혔다. 미니의학교는 의학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통해 과학적 소양을 넓히기 위해 미국의 주요 의과대학에서 운영 중인 특별 교육과정이다.

강원대는 미니의학교의 교육과정을 국내 실정에 맞게 재편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강의를 전담하고 의과대 학생들은 자원 봉사자로 참여, 실습활동을 돕게 된다.

건국대

건국대(총장 오명)는 7월 2일(수)부터 국내 대학에서 처음으로 소액의 사이버 머니로 테마별 대학발전 사업에 기부하는 온라인 기부시스템 'KU 나누미' 운영을 시작했다.

KU 나누미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fund.konkuk.ac.kr)에서 싸이월드의 '도토리'와 같은 1000원 단위의 사이버 머니인 '우유병'을 구입해 기부자가 원하는 테마별 발전 사업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성대

경성대(총장 나중식)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각국의 외국인 학생 21명이 초청

되어 3주간에 걸쳐 한국어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강습과 문화교류 행사 등을 체험하게 되는 "2008 Summer Korean Culture Experience Program" 행사가 7월 28일(월)부터 시작된다.

경희대

경희대(총장 조인원)는 UN,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중국 북경대,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와 공동으로 개설하는 '2008 세계 협력 서머 프로그램' (Global Collaborative 2008 Summer Program)을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아 7월 30일(수)까지 경희대에서 열리고 있는 서머 프로그램은 '글로벌 거버넌스와 동아시아 문명'을 주제로 문화·경제·사회·과학·UN 5개 분야 총 19개 과목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계명대

2008 대구 국제대학생 축제(2008 Daegu International Youth Festival)가 8월 12일(화)부터 6박 7일간 계명대(총장 신일희) 및 대구시, 경북 일원에서 열린다.

계명대 자매대학 및 대구시 자매도시에서 온 10개국(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미국, 터키, 체코, 필리핀, 홍콩 및 몽골) 83명의 외국인학생과 계명대 재학생

30명 등 총 113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홈스테이, 산업체 견학, 문화탐방 및 체험 등 다양한 참여코너를 통해 한국 문화 이해와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 계기가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광운대

광운대(총장 이상철)는 최근 '2008 필리핀 오픈소스회의에 참가해 세부 IT 교육개발재단과 세부대학 등 필리핀 10개 대학과 교육과 학술의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고 7월 9일(수)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운대와 필리핀 대학들은 ▲학생 및 교수의 상호교환 ▲어학연수(ESL)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대구가톨릭대

대구가톨릭대(총장 서경돈)가 대학의 교훈인 '사랑과 봉사'를 지구촌에서 몸소 실천할 해외봉사단을 세계로 각국으로 파견했다.

첫 번째로 파견된 국가는 필리핀으로, 총 동아리 연합회 학생 25명으로 구성된 'GAS' 팀은 지난 6월 30일(월) 발대식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젊은이라는 뜻의 라틴어(Giovani per Amare e Servire)의 첫 글자를 따서 팀을 만든 이들은 7

월 12일(토)까지 13일간 마닐라 및 타가이타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현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 덕성여대

덕성여대(총장 지은희)는 7월 1일(화) 연변과학기술대와 학술적·문화적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대학은 이날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위치한 연변과학기술대에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고 교육, 연구, 기타 활동 분야에서 교류 증진을 확대하며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공동 연구기로 했다.

● 동국대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는 23일(수) 교내 교무위원 회의실에서 김영일 경상북도 정부부지사, 이시우 경주시 자치행정국장, 태성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 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한문희)과 '상호기술협력에 관한 학·연협약'을 체결했다.

● 대구가톨릭대

대학과 지자체가 양 기관의 특화된 분야를 함께 교류·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손을 잡았다.

대구가톨릭대(총장 서경돈)와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8월 5일(화)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영천시의 전통 특산물의 브랜드 개발과 자동차 산업 기술 연구를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의 관학협정을 체결했다.

● 목포대

목포대(총장 임병선)는 대한지적공사와 상호 이해 및 호혜와 평등의 원칙 아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인적 및

지적 자원 교류를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을 7월 22일(화) 11시 대학본부 2층 회의실에서 거행했다.

● 부경대

아프리카 연안 11개국이 한국의 수산과학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한했다. 부경대(총장 목연수)는 7월 3일(목) 오전 11시 20분 대연캠퍼스 수산과학대학에서 '아프리카 주요 연안국 수산기술자 연수교육' 입소식을 가졌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사람들은 앙골라를 비롯 아프리카 11개 주요 연안국들의 수산분야 공무원 또는 경영자 등 15명이다.

또한 부경대 목연수 총장과 일본 토호쿠대학 이노우에 아키히사 총장은 7월 17일(목) 오후 부경대 용당캠퍼스에서 양 대학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조인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이 연구센터는 공학을 비롯 인문사회과학 및 기초과학 등 전 학문분야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양 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서울대

서울대(총장 이정무)에 첫 계약학과가 탄생한다. 서울대 경영대학은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중견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그제큐티브 MBA' 과정을 개설한다고 7월 22일(화) 밝혔다.

● 연세대

세계고등교육시장의 경향에 대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4회 QS APPLE 컨퍼런스(주최 QS, 주관 연세대) 개최식이 7월 9일(수) 오후 4시 연세대(총장 김한중) 제3공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연세대 김한중 총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교육은 연세대

학교의 중요한 이슈다. 연세대의 글로벌 스케일을 확대하기 위해 'Global 5-5-10'(5년 내 5개 분야를 세계 10위권 내에 올리는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연구 및 기초학문 분야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송도글로벌복합단지 조성 중에 있다.

● 우석대

전주 우석대(총장 라종일)가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외 영어연수를 실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우석대는 2005년부터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필리핀 클라크(Clark)에 있는 글로벌스탠더드 어학원에 15일씩 영어연수를 보내고 있다. 연수비용은 대학이 130만원, 학생이 20만원을 부담한다.

● 인천대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합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7월 29일(화) 인천대에 따르면 시립 인천대와 시립 인천전문대를 통합해 정원 1만 명이 넘는 국립대 법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 인하대

인하대(총장 홍승용)가 미국 일리노이대와 정보통신(IT) 분야 대학원 분교를 설립하는 내용 등의 양해각서(MOU)를 7월 1일(화) 체결했다.

이날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열린 체결식에서 양 대학은 ▲송도지식 산업 복합단지 글로벌 캠퍼스 내 IT 분야 대학원 분교 설립 ▲벤처창업지원 및 기술 재교육센터(Technology Entrepreneur Center) 설립 ▲공동연구 및 연구센터

설립 추진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전북대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가 미국 보이시주립대학에 이어 일본 자매 결연대학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연다.

11일 전북대는 일본 와세다대학생 5명과 호쿠리쿠대학생 4명, 치바대학생 6명, 아자부대학생 2명 등 17명을 초청,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2008년 여름방학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Feeling Korea Program)'을 22일(금)까지 2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알타이학회가 주최하고 전북대와 한국 학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제8차 알타이학 국제학술대회가 7월 19일(토), 20일(일) 양일간 전북대(총장 서거석) 인문대학 교수실에서 개최됐다.

● 조선대

일본 대학생들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조선대(총장 전호중)가 NICE(New International Chosun Education) 프로그램의 하나로 8월 3일(일)부터 23일(토)까지 개설하는 '2008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와세다 대학생 10명과 시즈오카 대학생 6명 등 16명이 조선대학교를 찾았다. 조선대는 자매결연을 맺은 두 대학에서 실시 중인 일본어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교환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일본 대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대학 및 국가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창원대

창원대(총장 박성호)는 7월 15일(화) 중

국 심천대(총장 장필공)를 방문하여 지난 4월 양교 간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교 간 교환유학생, 교직원, 연구 교류 등 양교 간 실질적인 학술·교류프로그램은 추후 세부시행 세칙체결 절차를 거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IBO 2010 조직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 지원으로 생명과학 영재 조기 발굴과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개최되는 『제21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IBO 2010)』 행사 개최지로 국립창원대학교를 최종 확정하여 이길재 IBO 2010 조직위원장, 박성호 창원대학교 총장, 김태호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창원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대학교(본관 2층 회의실)에서 협약을 체결한다.

● 한국교원대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권재술) 도서관에서는 "제50차 국·공립대학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를 2008년 8월 21일(목) 10시부터 한국교원대학교 교원문화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한국외대

한국외국어대(총장 박철)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기업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외대는 '졸업생 애프터 서비스(AS·after service)'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7월 14일(월)부터 8월 8일(월)까지 4주간 '경영회계실무', '실무 영어', '실무 일본어', '실무 중국어' 교육을 진행한다고 7월 9일(수) 밝혔다. 8월 18일(월) 오전 11시 용인시청 정책토론실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철)와 용인시청(시장 서정석)은 '세계문화마을(가칭 용인영어마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용인영어마을 조성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추진과 후속 개별사업 관련해 상호협력하며, 영어마을 조성 관련 제반 여건을 갖춘 후에 세부사항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기로 명시했다. 또 세부추진계획은 쌍방 합의하에 정하되 사업 추진은 용인시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 한남대

교수들이 월급을 떼어서 제자들의 해외연수비를 마련해줘 화제가 되고 있다. 한남대(총장 김형태) 경영학과와 경영정보학과 학생 19명은 7월 5일(토) 자매 대학인 필리핀 레이테사범대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2주간의 연수비용 3,200만원은 모두 이 학과 교수들이 지원했다.

교수들이 한꺼번에 목돈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한남대 경영학과와 경영정보학과 교수 16명은 11년 전부터 매월 월급에서 15만 원 정도씩을 떼어서 제자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적립해왔다.

● 한동대

한국이 본격적인 교육공역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요즘 한동대가 제 3세계 발전을 위한 국제 기업가 정신(Global Entrepreneurship)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포항 한동대(김영길 총장)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에 걸쳐 제3세계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 UNDP-한동대 공동 주최, 교육 과기부 후원의 GEST 2008(Global Entrepreneurship Summer Training 2008)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회원대학 소식 게재 신청
infor@kcue.or.kr